



대만 RI3501 & 3502지구 로타랙트 방한 우리 지구 로타랙트 연합과 자매결연 및 교류활동 펼쳐



2017-18년도 지구대표 **김재정**
송실남산로타랙트클럽

서로가 처음이지만, 처음이 아닌 것 같은..

지난 1월 12일~16일 저는 제 3회 한국, 대만, 일본 로타랙트 친선회의 행사 일정으로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이 느꼈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로타랙트까지 눈을 돌 수 있었던 저는 우리나라 로타랙트 친구들에게도 국제교류 행사에 대해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3650지구 & 3501지구, 3502지구의 friendship' 행사는 2월 24일~27일 서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에는 3501지구 2명, 3502지구 7명 총 9명의 대만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3650지구에서는 저를 포함한 현, 차기 지구임원, 로타랙트 회장단 및 회원들, 그리고 인터랙트 장준 지구대표 등이 참석하였고 함께 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인원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첫 날 저는 지구임원 동생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에 인천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3502지구대표 Sara와 지난 한

대일 친선회의 때 봤던 반가운 친구들이 한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는 처음 인사를 나누고 서로 명함을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사진을 찍고 곧바로 서울로 이동하였습니다.

첫 날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대만 친구들을 위한 'Welcome ceremony'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3650지구 로타랙터들이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처음에는 서로가 적응을 못하였지만 '우리는 로타랙트'이었기 때문에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뒤풀이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대만 친구들에게 한국만의 특색있는 곳들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첫 장소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대만에 치파오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한복이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만 친구들에게 우리나라 전통 의복인 한복을 입히고 경복궁 투어를 시켜주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대만 친구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데 한복을 입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시청역에 있는 스케이트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대만은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대만 친구들이 접하지 못하는 곳을 데려갔습니다. 처음 타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스케이트장에서는 모두가 정신 없이 노느라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로 이동하여 간단한 미션과 함께 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연세로타랙트 회원 3명이 연대 투어에 큰 도움을 주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투어까지 마친 후 저녁을 먹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셋째 날, 대만에서는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한다고 해서 인사동에 있는 런닝맨 체험관을 데려갔습니다. 각 부스마다 점수를 획득 하면 되는 게임으로, 대만 친구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린 후, 점심을 먹고 이동한 곳은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였습니다. 롯데월드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놀이동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놀이기구를 타긴 힘들었지만 잡담을 나누면서 기다려 놀이기구도 타고, 롯데월드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사진으로 담아갔습니다.

마지막 날은 서울의 중심인 명동으로 이동하여 쇼핑 및 길거리 음식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조 대만 친구들에게는 길거리 음식인 분식을 소개시켜줬습니다. 대만 친구들은 "it's so spicy." 라는 말을 하였지만 맛있어 했고 좋아했습니다.

We were one because we are rotaract.

지난 1월 친선회의 이후 두 번째 접한 국제교류 행사였습니다. 1월에는 국제교류 행사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이번엔 배움을 바탕으로 직접 대만 친구들을 호스트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또 잘 즐기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민은 한국 로타랙터와 대만 로타랙터가 잘 어우러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로타랙터를 대부분이 처음 접한 행사였기 때문에 잘 융화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걱정도 잠시 우리는 로타랙터였기 때문에 금방 친해졌고 마지막 날엔 서로가 너무나도 아쉬워했습니다.

지난 1월 대만 친구들은 저에게 어딜 가든지 항상 '로타랙터'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만 친구들을 호스트 해줄 때 이 친구들과는 나라와 지구,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로타랙터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간에 많은 교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행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이순동 총재님, 김민태 로타랙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참가해주신 로타랙트클럽 회장단 및 회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열심히 준비해준 우리 지구임원 친구들!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서울남산&송실남산 로타랙트클럽, 스폰서클럽인 서울남산RC 회원들과 함께 영락애니아의 집에서 봉사

2월 24일 서울남산(서울간호대) 로타랙트와 송실남산 로타랙트가 서울남산 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영락애니아의 집에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장애아 분들의 식사를 보조하고 산책을 하는 등의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로타랙트에서 진행하지 않는 봉사라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 이였습니다.

봉사가 끝난 후 로타리분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정말 너무 맛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저희들에게 다양한 활동들을 제안해주시고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모습을 보고 올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 할 수 있는 시간 이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의미 있는 봉사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서울남산RC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남산로타랙트 회장 박윤주

한양캠프 로타랙트클럽, 스폰서클럽인 서울중앙RC 회원들과 함께 영락애니아의 집에서 봉사



한양캠프 로타랙트클럽은 지난 2월 6일 스폰서 로타리클럽인 서울중앙로타리클럽의 정기 주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주회는 서울 밀레니엄 호텔에서 진행되었으며 한양캠프 로타랙트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 클럽 운영 계획과 현재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중앙로타리에서 이 날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고 일 년 동안 클럽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인사 전합니다. 또 2월 20일에는 서울중앙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한양캠프 로타랙트의 연합 봉사가 있었습니다. 봉사는 영락애니아의 집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영락애니아의 집은 한양캠프 로타랙트의 정기 봉사지이기도 합니다. 연합으로 봉사를 하면서 로타리 회원 분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되었으며 해당 시설의 상황들도 많이 알게 되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양캠프로타랙트 회장 홍진우

새강북RC, 혜화여고 인터랙트클럽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새강북로타리클럽(회장 이진호)에서는 매년 회원님들의 생일성금으로 혜화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화여자고등학교 인터랙트클럽 회원 3명과 일반 장학생으로 학교 추천을 받은 어려운 가정형편의 학생 1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 올 회기부터는 일반 장학생의 장학금을 확대하여 금액과 인원을 늘려 매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광덕 이진호 회장님과 운정 안병석 총무님께서 혜화여자고등학교 교장실을 방문하셨고 김서구 교장선생님과 류영서 교감선생님, 오지영 지도교사와 함께 학교 안팎의 사정과 인터랙트 활동상황 등에 관련된 의견을 나누시고 학생들에게는 로타리클럽을 소개하고 덕담을 나누셨습니다.

학교에서 추천한 1학년 학생 이가영, 심예원, 전윤아 학생에게는 한 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50만원을 각각 장학금으로 수여하였습니다.



서울남산RC, 상명대부속여고 졸업식 참석, 상명대부속여고 인터랙트 졸업 학생들에게 표창 및 상품 전달



서울남산로타리클럽(회장 서상준)은 지난 2월 9일, 후원 인터랙트클럽인 상명대부속여고 졸업식에 참석하여 졸업하는 상명대부속여고 인터랙트 학생 2명(한혜영, 박혜민)에게 총재 표창장과 한국로타리 청소년연합 이사장 상장을 대신 전달하고, 서울남산RC에서 준비한 공로패도 함께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상명대부속여고 인터랙트클럽 회장 포함 11명의 학생에게 봉사상과 부상(문화상품권)을 수여했습니다.

韓日 인터랙트 교류활동


 District 3650
Interact
 Rotary Sponsored Club


평창 패럴림픽에서 꽃핀 한일 인터랙터들의 따뜻한 우정

3650지구와 일본 도쿄 2750지구 로타리안 및 인터랙트 회원 등 10명
 평창패럴림픽 개막식 관람 등 2박 3일간 뜻깊은 교류활동 펼쳐

지난 3월에 개최된 평창 장애인 패럴림픽에 즈음하여 우리 3650지구와 일본 도쿄 2750지구와의 아름다운 한일 청소년 교류활동이 지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실시됐다.

이번 방문은 자매지구인 RI2750지구 도쿄에비스로타리클럽의 주최로, 일본 와세다실업고등학교 호소쿠라 나오유키, 마쓰시타 코헤이 등 2명의 남학생들과 우리 3650지구 건대부고 인터랙트클럽 김미림, 이예나 등 2명의 여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2750지구의 도쿄에비스RC 깃타카 카오루코 회장, 마쓰시타 마사오 일한친선위원회 사무총장, 키무라 마코토 일본로타리 총재단 사무국장, 니시카와 마사오 도쿄에비스RC 부간사 등이 참가하여 한일 양국 인터랙트 회원들과 함께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을 함께 관람하는 등 2박 3일간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방한단 중에는 코이케 신이치 일본 교도통신 기자가 동행하여 앞으로 일본 전역에 이번 한일로타리 청소년교류활동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 청소년 교류사업 방한단 일행은 3월 9일 방한하여 주한일본대사관 문화공보부를 방문하였으며,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을 관람한 이후, 경포 세이트존스호텔에서 함께 숙박을 했다.

3월 10일에는 평창올림픽 시설 견학과 강릉 오죽헌 등 관광을 했으며, 이날 저녁에는 서울에서 우리 지구 문덕환 전총재, 장만석 건대부고 인터랙트 지도교사 등과 교류사업 평가회 만찬을 함께했다.

한일 양 지구는 앞으로 2020년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에서도 양국 청소년들이 함께 도쿄를 방문하여 올림픽 견학과 청소년 교류를 위한 한일 청소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창 패럴림픽, 한일 로타리 청소년 교류회 참가소감

‘함께’라는 의미를 깊이 새긴 소중한 기회



건대부고 인터랙트클럽 2년 김미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올림픽에 대한 동경심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1988 서울 하계올림픽이 개최된 이후로 30년 만에 우리나라에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동계 패럴림픽이 개최되었고, 저는 좋은 기회가 닿아 이번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에 일본 친구들과 함께 관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경험하기를 좋아했던 저로서는 이번 국제교류의 기회가 매우 뜻깊고 소중했습니다. 또한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올림픽 게임과는 다르게, 대중성이 낮고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패럴림픽 게임에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일본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개최되는 동계 패럴림픽에 함께 참가하고자 하는 여러 일본 로타리안들이 있었기에 그 자리가 더욱 빛나고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국제교류 및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 관람의 경험으로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라는 의미를 더욱 잘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기회들이 생기면 서슴없이 도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주신 로타리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창 패럴림픽, 한일 로타리 청소년 교류회 참가소감

‘한일 국제교류 사절’로 활동했다는 뿌듯함



건대부고 인터랙트클럽 2년 이예나

3월 9일과 10일, 이틀간 진행되었던 한일 로타리 청소년 교류회를 통해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 방문단 일행분들과 함께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을 보고 강원도 시내 관광과 올림픽 시설을 견학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에 비해 패럴림픽은 대중성이 낮고 규모가 크지 않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큰 안타까움을 느꼈고, 앞으로 더 크게 대중화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못지않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그동안 건대부고 인터랙트의 부원으로써 노인복지관이나 정립회관에서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들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장애인 복지 부분이 많이 부족함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패럴림픽 선수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끝없는 도전 정신으로 노력하여 이런 큰 대회에 출전하였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큰 노력이 뒤따른 만큼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평창 패럴림픽을 위해 일본에서 한국까지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틀간 의사소통이라는 큰 장벽 앞에서 많이 부딪혔지만 서로 노력하며 의사소통하고 서로의 나라에 관해 질문도 하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일본과 한국이 가까워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원도 시내 관광으로 오죽헌 탐방을 갔었습니다. 오죽헌이라면 수학여행으로 수도 없이 온 장소였지만 이번에 일본 방문단 일행들과 왔을 때 저희가 직접 가이드처럼 문화재 소개를 하고 일본 학생들의 역사 관련 질문에 대답도 하면서 ‘작은 규모의 한일간의 국제 교류 사절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박 2일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신 일본 방문단 로타리안 일행분들과 2명의 일본 인터랙트 친구들, 저희에게 이런 큰 기회를 주신 국제로타리 3650지구와 스폰서클럽인 서울성동로타리클럽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정동극장 상설공연

<궁:장녹수전>

RI3650지구와 2015년 MOU 체결,
로타리안 및 가족 예매시 40% 할인제공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공연 제작극장, 정동극장이 우리 역사 속 실존인물의 이야기를 새로 쓰는 뉴 브랜드 공연을 선보인다. <궁:장녹수전>은 조선 최고의 기녀이자 욕망의 화신으로 낙인찍힌 '장녹수'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녀가 탐한 권력 이야기와 그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예를 상상해 재구성한 창작극이다.

정동극장 전통공연은 드라마가 있는 무용극으로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 전통 기방 문화와 민가의 놀이문화 그리고 궁중 연희의 모습까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획이 될 것이다. 예인 '장녹수'를 통해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기예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2018 정동극장 상설공연 <궁:장녹수전>에서 펼쳐진다.

정동극장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극장 '원각사'의 복원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근현대 예술정신을 계승하며 1995년 개관하였다. 전통상설공연브랜드 「MISO:미소」(2000)을 론칭해 <춘향연가>, <배비장전> 등 우리 고전을 무대화 한 전통공연을 선보였으며, <가온>, <전통ing>, <런, 다시 피는 꽃> 등 창작공연을 통해 전통공연의 대중화를 선도해 왔다.

국제로타리 3650지구는 지난 2015년 5월, 정동극장과 한국 전통공연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우리 3650지구 회원 및 가족들이 정동극장 공연을 예매할 경우, 40%의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다.

유선전화를 통해 예매시 로타리 회원이라고 밝힐 경우 40% 할인을 적용하여 티켓 구매가 가능하다.

- 공연일시 : 2018년 4월 5일부터 ~ Open Run
화~토 오후 4시 공연 (일, 월 공연 없음)
- 런닝타임 : 75분
- 관 람 료 : VIP석 60,000원 /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공연장소 : 정동극장
- 예매 문의 : 정동극장 02-751-1500
www.jeongdong.or.kr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perpark.com

Rotary
District 3650



정동극장
JEONGDONG THEATER